

여순사건 10%도 못 밝혔다...진상규명 특별법 연장을

법적 시한 3개월 앞두고 7546건 중 708건 조사 그쳐 여순사건위, 25일 담양서 희생자 19명 '유해 봉안식'

여순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위)가 여순사건 희생자 19명의 시신을 발굴해 '유해 봉안식'을 연다.

2022년 여순사건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추모 행사'지만, 여순사건위의 법적조사 기한이 오는 10월 만료될 예정이어서 진상 규명과 유해 발굴 등 현안에 차질이 우려된다.

여순사건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구례군 구례 실내체육관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봉안식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여순사건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육전약수터에서 발굴 작업을 해 희생자의 유해 19구를 발굴했다.

유해는 뼈에 총탄이 그대로 박혀있거나 두개골에 총상이 있는 등 집단 학살 정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학살 직후 일부 유족들이 해당 장소에서 유해 일부를 수습해 갔다는 증언도 나온만큼 실제 학살된 사람의 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순사건위는 이번에 발굴된 시신들이 한국전쟁 직후 구례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구례 보도연맹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구례지역 국민보도연맹원 38여명이 희생된 참사다.

당시 군경은 이들이 인민군에게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육전약수터

골짜기로 끌고 가 집단 학살했다.

여순사건위는 유해 봉안식을 마친 뒤 유해로부터 유전자(DNA) 시료를 채취해 유가족들과 대조하는 등 신원 확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순사건 전문가들은 이번 발굴을 계기로 여순사건위가 직권 조사를 통해 경찰서 등 기록을 전수조사하고 정확한 학살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들은 아직 미처 발굴하지 못한 여순사건 관련 유해가 곳곳에 남아있는데다 희생자·유족 결정을 비롯한 진상규명 조사도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특별법 시효를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희생자와 유족 등 조사 대상이 7500건을 넘어섰는데도, 조사 기한을 3개월여 앞둔 지금까지 조사 진척도가 10%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순사건위는 중앙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로 구성돼 있으며, 실무위에서 신고 접수 건에 대

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중앙위에서 희생자 및 유족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순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여순사건위에 따르면 17일 현재 기존 여순사건 위에는 총 7546건의 희생자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실무위를 통과한 것은 2741건 뿐이며, 중앙위 심의까지 마친 건수는 전체 신고 건수의 9.3%인 708건에 불과하다.

현행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는 여순사건위가 10월 까지 조사를 마치고 내년 4월까지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순사건위 관계자는 "현행법이 정해놓은 시한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76년 전 사건을 다루는 만큼 사실상 마지막 진상조사 활동이 될텐데 부실 조사로 끝내서는 안 된다. 특별법을 개정해 조사 기한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여순사건위 중앙위의 무관심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순사건위 진상규명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추모 사업인데도 중앙위원 한 명도 참석하지 않고, 구례군 여순사건 유족 일부와 중앙위 실무자 등 50여명 수준의 작은 행사만 연다는 것이다.

더구나 중앙위는 행사 준비 과정에서 실무위원들에게 봉안식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순사건위 관계자는 "유의미한 행사조차 조출하고 조용하게 처리해버리는 것도 이상하고, 실무위원장인 전남지사조차 참석하지 않는 추모식을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 여순사건위 중앙위원은 "전 정부에 비해 현 정부는 여순사건에 관심이 없다"며 "중앙위부터 여순사건에 무관심하다 보니 큰 행사를 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차량이 보행자 신호등(노란색 원)을 가로막고 있다.

신호등 가린 공사차량, '보행자 안전' 눈 감았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상무지구 BYC사거리 보행자 불편 겪어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공사 차량이 보행자 신호등을 완전히 가리는 등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BYC사거리에서는 대형 크레인 차량이 신호등을 가로막아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크레인 팔(boom)이 차량 신호등 일부를 가로막는데다 거대한 차체로 횡단보도 신호등을 완전히 가려버려 보행자들이 보행자 신호를 아예 볼 수 없는 상태였다.

도로 폭이 60여m에 달하는 큰 도로인데도 언제 건너가야 할지 알 수가 없으니 애가 타는 시민들은 도로 너머로 고개를 연신 기웃거리고, 아예 차도까

지 걸어나가 신호를 확인하는 등 불편이 지속됐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가 사고 위험에 처하는 아찔한 상황도 잇따랐다.

주민 김지석(33)씨는 "최소 3일 전부터 횡단보도 앞을 크레인이 점거했는데, 오늘도 보행자 신호가 보이질 않으니 언제 길을 건너야 하나 기다리다 신호를 세 번이나 놓쳤다"며 "오전에는 한 여르신이 무작정 길을 건너려다가 직진하는 차량에 치일 뻔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소한 보행자 안전은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해당 공사 구간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공구로, 이곳에서는 도시철도 열차가 통과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이 이뤄지

고 있다.

문제의 크레인은 이번 주 초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크레인은 지하 12m 깊이의 공간에 철근이나 콘크리트, 거푸집 등을 들고 나르고 있다.

크레인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까지 배치돼야 하므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여러 구간에 걸쳐 공사를 하다 보니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불편 사항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사 현장을 확인해서 크레인 위치를 옮기거나 볼데 높이를 조정하는 등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오후 광주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의 크레인을 이동 조치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양 백운산서 9800만원짜리 '심봤다'

50년근 천종산삼 24뿌리 발견

광양 백운산에서 야생 산삼이 무더기 발견됐다.

17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약초꾼인 정모(65·광주)씨가 최근 광양 백운산에서 천종산삼(사진) 24뿌리를 발견했다.

천종산삼은 50년근 이상으로 뿌리까지 20~30cm에 이르고 총 무게는 150g이다. 산삼의 몸통 길이는 5cm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종산삼은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이 배변 등으로 씨앗을 퍼뜨려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전통심마니협회 정형범 회장은 "이번에 발견된 천종산삼은 색상이나 형태 등이 뛰어나다"며 "최근 값싼 중국산으로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상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산삼



거레 전 반드시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통심마니협회는 이 천종산삼의 감정가를 100년근의 3분의 1 수준인 98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국민권익위, 광주 서구 아파트 준공지연 위기 해소

'도로 개설' 관계기관 협력 유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도로 개설 문제로 발생한 준공지연 위기를 조정해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17일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A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 협력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A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도로를 개설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당초 건설사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해 국유지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도로 예정부지 일부 소유자인 법무부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가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며 토지를 제공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것이다. 해당 부지에서 외국인들이 주로 탑승하는 호송버스를 운용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인근 교통이 혼잡해질뿐 아니라 내년 3월로 예정된 A 아파트 입주예정일도 미뤄져 900여세대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입국사무소 청사 부지 내 호송버스 주차장 위치에 차고지를 증축하는 방법으로 공무수행 지장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관할 지자체인 광주 서구에도 차고지 건물 증축, 도로 개설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